

## II급 부정교합의 양악발치 증례

최 성 환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 교수

II급 부정교합이란 골격적으로는 ANB와 Wits 값이 표준편차 범위보다 유의하게 크고, 치성적으로는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에 비해 하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구가 원심에 위치하는 앵글씨 II급 구치부 교합이다.

성장이 완료된 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고정성 교정장치를 이용한 소구치 발치 치료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입술 돌출, 치아 밀집 및 하악 스피만곡이다. 두개저 기준으로 상악 전치가 정상치에 비해 심한 순측 경사를 보이고, esthetic line을 기준으로 입술 돌출 또한 현저하다면 치열궁 내 치아 밀집 정도와 상관없이 편악 또는 양악 소구치 발치(상악 제1소구치, 하악 제1 또는 제2소구치)가 필요하다. 치아 밀집 정도가 사랑니 발치 공간 또는 악궁 확장 등으로 개선될 수 없고, 하악 스피만곡을 평탄화할 시 하악 전치가 하악 평면 기준 정상치에 비해 심하게 순측 경사될 경우 양악 소구치 발치 치료가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II급 부정교합의 양악 소구치 발치 치료 시 골 고정원 및 활주 역학을 이용하여 상악의 6전치를 동시에 견인하고, 상악 4전치의 과도한 설측 경사를 방지하기 위해 순측 치관 토크가 사전에 부여된 스테인리스 각형 와이어를 사용한다. 하악의 경우 중등도 고정원을 이용하여 하악 제1대구치의 근심 이동을 허용하고, 앵글씨 I급 구치부 교합을 이뤄야 한다. 치료 종료 시에는 하악 제2소구치 발치 증례의 경우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에 협측 고정성 유지장치를 부착하여 발치 공간의 벌어짐을 예방하여야 한다.

본 연재에서는 다양한 II급 부정교합 환자에서의 양악 발치 증례를 살펴보고, 치료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 학력 및 경력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연세대학교 치과교정과 수련 과정 수료
- \* 치과교정과 전문의
- \* 연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 석사·박사
- \* 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학교실 교수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한림원 회원